

섬진강 발원지 따라 걷는 역사·문화 탐방

진안군, 11일 ‘섬진강 정자기행’ 개최

진안군은 오는 11일 ‘섬진강 정자기행’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진안군이 주최하고 진안고원길과 (사)우리땅걷기(대표 신정일)가 주관한다.

‘섬진강 정자기행’은 섬진강 발원지인 진안 백운면과 마령면 일대 정자와 진안고원길 약 9km 정도를 따라 걷는 행사로, 참가자들은 산과 강을 누비며 정자와 문화유산들을 탐방하고, 역사 이야기를 곁들인 생태·인문학적 체험을 즐기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섬진강은 진안군 백운면의 우녀봉 아래 데미샘에서 발원해 남해 광양만까지 223km를 흐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다. 발원지인 데미샘은 상징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2016년 1월 5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기도 했

다.

행사는 백운면 영모정에서 출발해 염수정, 모운정을 차례로 돌아보고 백운면 내동숲에서 점심시간을 가진다.

이후 백운면 물레방아와 쌍계정을 지나 강정리 근대한옥을 돌아보고, 쌍벽투를 거쳐 진안군의 국가지정문화재인 수선루를 끝으로 마무리 하게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섬진강 정자기행은 진안고원길과 섬진강 물길을 따라 시나브로 걷는 동안 마음과 몸이 치유됨을 느끼는 동시에, 진안군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역사와 생태를 함께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자기행을 통해 진안군의 문화와 섬진강 발원지로서의 생태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수선루 전경

한국 독립영화 10편, 헝가리 관객과 만난다

전주국제영화제×헝가리한국영화제 협력전 통해 작품 소개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원장 유혜령)이 주최하는 제18회 헝가리한국영화제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 및 상영작 10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2007년 시작된 헝가리한국영화

제(18. Korea Film Festival)는 올해로 18회를 맞아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한국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특별히 전주국제영화제와 협력전을 마련, 대안·독립영화의 최전선에서 상영과 제작투자를 이어나온 전주국제영화제의 작품들을 헝가리 관객에게 소개한다.

이번 협력전은 한국 독립영화 지원에 앞장서온 후지필름일렉트로닉이미징코리아(후지필름코리아)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제18회 헝가리 한국영화제는 10~17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코르빈 극장에서 개최된다.

상영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및 헝가리한국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가을 섬진강변으로 인문기행 떠나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1일 김용택 시인의 삶이 터전이자 창작 공간이 있는 임실 일원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재단이 운영하는 중장년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 <나를 발견하는 여행인문학> 일환으로 40~60대 수강생 20여 명이 참여해 인문학적 성찰과 지역문화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문기행은 섬진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창작 활동을 이어온 김용택 시인의 ‘김용택의 작은학교’가 있는 임실에서 열렸다. 참여자들은 시인의 강연을 통해 자연과 삶, 문학이 맞닿은 이야기를 듣고, 구담마을과 장군목 유원지를 둘러보며 섬진강의 가을 풍경속에서 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지는 경험을 했다.

특히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 시인은 이번 기행에서도 특유의 화법으로 수강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자연 속에서 얻은 삶



의 지혜와 문학적 영감을 공유했고, 그의 작품을 읽어온 수강생에게는 작가와 직접 마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이번 인문학 기행이 자연과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며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중장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유파별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바탕

방수미 명창 12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강산제 심청가’ 공연

소리꾼 방수미 명창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강산제 심청가’를 선보인다.

이 공연은 ‘유파별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바탕’의 일곱 번째 무대로, 고수 김태영과 해설자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장이 함께 무대에 올라 작품의 예술성과 감동을 한층 풍성하게 접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심청가는 지극한 효심을 지닌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 황후가 되어 부친과 재회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음민에서 조상현, 남해성에서 방수미로 이어지는 강산제 보성소리 심청가가 무대에 오른다.

강산제는 서편제의 한 갈래로, 감정을 극대화한 구성과 섬세한 표현력이 특징이다. 슬픈 장면은 더욱 애절하게, 비통한 장면은 깊이 있게 그려내며, 특히 심방사 눈뜨는 대목에서는 관객이 일시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감정의 정점을 경험할 수 있다.

정음민, 조상현, 남해성 명창의 계보를 잇는 소리꾼 방수미는 강산제 보성소리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며, 깊은 감성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진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고전의 재현을 넘어, 유파에 담긴 미학과 판소리 서사의 감동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아시아 최대 국제 관광박람회’서 남원 홍보

시, 일본서 열린 ‘투어리즘 EXPO 재팬’ 참가… 대표 관광자원·콘텐츠 알려

남원시는 지난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Aichi Sky Expo에서 열린 ‘투어리즘 EXPO 재팬 2025’에 참가해 남원의 대표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홍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일본관광진흥협회, 일본정부관광국 등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관광박람회로, 전 세계 70여 개국 1,10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으며,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남원시는 전북도와 마련한 공동 홍보관에서 △광한투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영화 촬영지 △춘향계 등 대표 축제 △국악·한국체험 △남원 미식(추어탕, 흑돼지) 등 K-컬처와 전통문화가 결합된 관광자원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특히 25일과 26일 진행된 B2B 상담회에서는 일본 현지 여행업계와 총 15개 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남원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을 논의하고, 상담 과정에서 지방 소도시 관광, 수학여행단 체험 프로그램, 숙박시설 등 구체적인 문 의가 이어지며 남원 관광의 잠재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7일과 28일 2일간의 일반 소비자 대상 부스



운영에서는 SNS 팔로우 이벤트와 현장 상담을 통해 많은 방문객이 몰렸으며, 남원의 한국·국악체험, 드라마 촬영지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최근 일본 내에서 K-콘텐츠와 지방 체험관광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남원시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일본 관광시장에서 남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전북도와의 공동 홍보를 통해 관광상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